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면담

- 일시 : 2017.9.29.(금) 11: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 참석 : 교 육 부 - 방과후학교지원과 과장 박희동, 사무관 정재선
(사)초등보육교사연합회 - 이사장 이근배, 사무처장 김지섭

2017년 9월 29일 오전, 교육부 세종청사 방과후학교지원과에서 이근배이사장과 김지섭 사무처장, 그리고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 및 사무관과의 면담이 있었다.

2017년 9월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발표 이후 본 법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강력 반대 성명서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언론사에 보냈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한 면담으로 이루어 졌다.

1 면담 시 제시한 자료

1. 현재 부처별 돌봄서비스 운영

- 교 육 부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범)
-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2. 현 정부의 돌봄 서비스 강화계획 발표 내용

- 부처별 각각 운영하던 돌봄서비스를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으로 부처합동 실무추진단 구성, 정책적 논의를 거쳐 12월까지 기본계획 마련.

3. 시도교육감협의회 발표

- 9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6개 의결안 중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한다.

4. (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 및 전국 돌봄전담사, 학부모의 입장

-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단코 반대,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전국시도교육감을 사용자로 좀 더 명확히 하고 채용 및 인사 관련 통일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관련 법규 제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 학교운영은 지금에서 그대로 두고,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수용 대상을 저소득 및 취약계층 외 맞벌이 부모의 자녀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

다.

- 학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수행, 교육과정의 다변화 등 학교를 둘러싼 외부환경으로 인해 채용되어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초등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과 학부모 만족도로 국가정책 최고 평가를 유지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주체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람.

2 (사)초등보육교사연합회 그간의 노력(교육부 인지를 요하는 간략 내용)

- 서울의 경우 한 학교안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운영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없애고자 당시 지자체 운영 소속 초등보육교사들이 월 급여를 삭감하면서 단결하여 교육청운영으로 이관시킨 사례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돌봄전담사들의 역량개발 연수를 본 연합회에서 2011년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전국 교대와 연계하여 자비로 직무연수 실시, 연수만큼은 정부에서 책임져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반영되어 2015년 교육부에서 전국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시행, 이를 이끌어낸 사례
- 교대연계 역량개발 직무연수에 이어 2014년 방송대 프라임칼리지에 초등돌봄교육개론, 초등돌봄교육실무론을 제안하여 개설한 사례
- 현재 교육부에서 발행되고 있는 돌봄교실 안전길라잡이와 놀이 프로그램이 나오기 이전에 본 연합회에서 자체 개발한 돌봄교실 안전생활과 놀이 및 독후활동지를 제본으로 제시한 사례
- 한국교육진흥협회와 업무협약으로 자격증센터를 개설하여 50여개 과목 운영 중이며,
- 본 연합회 본부 및 전국지회에서 학부모연수 및 자체 안전연수, 역량개발 연수, 작품전시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국가정책평가 학부모 만족도 95%이상으로 최상위 만족도를 유지해 가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

3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

- 정부정책은 학교 안팎에서 다함께 공동체 역할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다.
- 관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정책제안 또한 다양하게 거칠 것이다.
- 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나온 바 없다.
- 지금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그대로 둔다. 현재 운영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길 돌봄 대상에 대해 부처합동 실무단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어느 쪽이든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초등보육교사연합회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한다.
-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도 현장의 의견이다. 결정된 것은 없다.

※ 2014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조례를 통해 교육감 직고용과 무기계약 전환으로 이제 겨우 고용에 관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해 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주체를 혼드는 정책으로 어느 한쪽의 편향된 의견만을 수용하여 감행된다면 본 연합회와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긴 전국학부모들과 함께 크게 분노 할 수 있음을 피력. 끝.